

「분청사기의 성립 여건에 관한 고찰」 「粉靑沙器의 成立 與件에 관한 考察」

崔 健
<弘益大講師>

	차 례
I. 머리말	2. 청동기(靑銅器)와의 관계
II. 분청사기(粉靑沙器)의 공예적(工藝的) 특징(特徵)	3. 경질도기(硬質陶器)와의 관계
III. 분청사기(粉靑沙器)의 성립(成立) 여건(與件)	4. 백자(白磁)와의 관계
1. 자기(磁器)(청자(靑磁))와의 관계	IV. 맺음말

I. 머리말

분청사기는 고려시대 말기에 조질화(粗質化)되어가고 있던 상감청자를 바탕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이어서 고려말·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변천을 거듭하여 사회의 제반여건이 안정되는 15세기 전반에 이르면 상감청자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 분청사기가 성립되었다.¹⁾ 따라서 분청사기의 경우에는 상감청자로부터 점차적으로 조형의장(造形意匠)이 변화하면서 전환되었기 때문에 ‘발생’이라는 의미보다는 ‘성립(成立)’이라는 의미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분청사기에 관한 연구는 현존하는 유물과 요지(窯址)의 지표조사(地表調査) 및 문헌자료를 통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년과 변천과정 및 우리나라 도자사(陶磁史)에서의 위치문제를 규명하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그 중에서 분청사기의 발생 및 성립에 관해서는 고려시대 말기에 부정적이었던 역사인식과 함께 조질화(粗質化)된 상감청자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본 분청사기로 파악되어져 왔다.²⁾

이러한 이해의 근거에는 상감청자와 비교되는 분청사기의 가시적(可視的)인 조형의장

1) 분청사기의 세대구분은, 姜敬淑, 『粉靑沙器研究』, (一志社, 1986), P.371.

여기서 분청사기의 前期(發生期)를 약 1360년경~약1420년경으로 구분하며 그 현상을 상감청자의 쇠퇴기 및 印花粉靑의 발생기로 규정하고, 中期(發展期)를 약 1420년경~약1480년경으로 구분하며 그 현상을 분청사기 장식기법의 다양한 발전기 및 인화분청의 완성·절정기로 규정하는 한편, 後期(衰退期)를 약 1480년경~약 1600년경으로 구분하며 그 현상을 상감·인화분청의 쇠퇴기와 철화분청·귀얄분청 등의 성행 및 쇠퇴기로 설정하고 있다.

2) 분청사기의 연구는 그의 발생 및 성립시기 등 편년에 관한 것과 조형의장에 관한 것에 관심의 초점이 모여져 왔다. 따라서 그의 배경에 관한 것은 소홀히 다루어진 형편이어서 구체적인 의견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과 함께 15세기 들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다량생산되는 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상감청자에서 분청사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량생산의 기반이 조성되는 여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또 그것이 당시의 공예적(工藝的) 상황과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관되고 있었나 하는 문제의 규명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II장(章)에서는 먼저 14세기의 상감청자와 비교되는 15세기의 분청사기의 공예적 특징을 밝혀보고, 이어서 III장(章)에서는 분청사기의 특징을 이루게 되는 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적 여건과 당시의 공예적 상황 속에서 파악되는 구조적 여건을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그러면 분청사기가 성립하는 여건이 자연히 밝혀질 것이며 아울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기의 도자(陶磁)에 관한 인식문제도 어느정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II. 분청사기(粉靑沙器)의 공예적(工藝的) 특징(特徵)

분청사기의 공예적 특징은 가시적(可視的)인 조형의장이나 제작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의도하는 공예적 특징은 산업적 특성, 즉 수량(數量)이나 질(質)과 종류(種類)에 관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분청사기의 기반이 되었던 청자와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찾아질 수 있으며 그것은, 첫째 수적(數的) 다량성(多量性), 둘째 질적(質的) 다양성(多樣性), 셋째, 조형(祖形)의 다종성(多種性)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수적(數的) 다량성은 청자와 분청사기의 생산지인 요지(窯址)의 분포 상황과 수적(數的)인 비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제까지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14세기 경의 상감청자 요지는 4개 지역의 18개소에 불과하며³⁾ 14세기말부터 15세기에 이르는 상감청자와 분청사기를 함께 제작한 요지는 15개 지역에서 29개소에 이르고 있다.⁴⁾ 요지의 분포도 14세기의 4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약 2배의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15·16세기의 분청사기 요지는 전국 89개 지역의 187개소로⁵⁾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앞서 14세기 말부터 15세기의 요지 29개소를 포함하면 200여개소가 넘는다. 14·15세기의 불과 1세기 동안에 도자기의 제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10배 이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 것은 고려시대 전기간 동안에 제작되었던 청자나 조선시대 백자의 경우와 명백히 비교될 수 있는 분청사기의 공예적 특성이라 하겠다.

이처럼 다량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의 층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수요자 층의 경제적 계급에 따라 분청사기에서도 質(質)으로 상(上)·중(中)·하(下)의 등급분화가 뒤따르게 된다. 특히 관청에 납부하기 위해 제작된 상감분청과 인화분청의 경우에는 12·13세기의 고급 상감청자와 비교할 때, 유태(釉胎)의 질(質)이 다소 뒤떨어지지만 치밀하고 정선된 태토 위에 맑고 비교적 두꺼운 유약이 씌워져 있고 제작 또한 엄격하였다. 이렇듯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과 세련된 인화상감기법(印花象嵌技法)으로 문양을 넣은 고급 분청사기가 존재하는 것은 14세기에 쇠

3) 崔淳雨, 『韓國靑磁陶窯址』 調查研究報告書82-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4) 尹龍二, “粉靑沙器窯址의 分布와 特色” 『粉靑沙器』·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特別展圖錄(13), (1984), pp.114~116의 全國 粉靑沙器窯址 地名表로 구분하여 파악된 숫자임.

5) 尹龍二, 未刊.

퇴한 저질 상감청자와 비교할 때 질적(質的)인 고급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질의 태도에 간략화되거나 편리한 방법으로 다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손쉬운 장식기법의 사용과 거친 제작기술 및 얇은 유약을 씌운 저질의 분청사기가 공존하는 것은 이 시기에 있어서의 질적인 다양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도자기의 다량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14세기에 들어 쇠퇴와 함께 저질화 현상을 보인 상감청자와 비교할 때 분청사기가 갖는 공예적 특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분청사기의 확대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번째 특징은 기형(器形)의 계통이 상감청자의 기형을 계승한 것과 청동기의 기형을 계승한 것, 경질도기(硬質陶器)의 기형을 계승한 것 등을 포함하여 분청사기의 기종(器種)을 형성하는 조형면(祖形面)에서 다종성(多種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량생산을 지향하는 분청사기의 기형(器形)상의 성격은 상감청자의 의례기적(儀禮器的)인 또는 장식적인 성격의 기형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형만이 채택되고 있는 점으로 명백히 구분되어진다. 즉 청자의 대표적 기형인 매병(梅瓶)·화병(花瓶)·주전자 향로(香爐)등이 분청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음식기를 중심으로 하는 발(鉢)·접시·병(瓶)·호(壺)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청자보다는 분청사기가 일상생활 기명으로서 실용적으로 더 적극성을 띠고 있었던 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성은 고려시대의 일상생활 기명에서 주류를 이루어 왔던 청동기와 경질도기까지 분청사기화(化)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청사기의 중심을 이루는 기형들 중에는 상감청자 기형의 계통을 따르는 것보다 오히려 청동기와 경질도기의 계통을 따르는 것이 더 많이 보이는데, 이 점은 상감청자보다 청동기나 경질도기가 일상생활 기명으로 더 적극적으로 실용적이 되어왔던 오랜 관습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청동기의 기형에 조형을 두는 분청사기의 기형으로는 반합(飯盒)과 높고 외반(外反)된 굽의 발(鉢), 그리고 양쪽의 손잡이가 붙은 대형발(大形鉢)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주병(酒瓶)과 고급 인화분청의 대표적 기형인 구연부가 외반되고 굽이 다소 높으며 조금 외반된 발(鉢)의 경우도 고려시대 청동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경질도기의 기형에 조형을 두는 분청사기 기형으로는 장군과 편병(扁瓶) 및 대형옹류(大形甕類)를 지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장군의 경우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경질도기로 꾸준히 제작되어 왔던 기형이지만, 아직까지 청자로서는 발견된 예가 없기 때문에 분청사기의 장군은 고려시대 경질도기 장군에서 일상생활 기명의 분청사기화(化) 및 다량생산 과정에서 질적(質的)인 상승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편병이나 대형옹류에도 적용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분청사기가 갖는 세가지 공예적 특징은 각각 개별적인 특징이 아니고, 다량생산에 따라 폭 넓은 수요자층이 형성되어 질적(質的)인 다양화가 요구되었던 결과에 의한 것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기명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적극성을 띠게 되면서 다른 재료로 제작되던 기형까지 흡수하여 조형(祖形)의 다종화(多種化)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세가지 특징은 서로 유기적인 밀접한 관련 속에서 실현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 중에서 다량성(多量性)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다양성(多樣性)과 다종성

(多種性)은 다량생산이 전제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Ⅲ. 분청사기(粉靑沙器) 성립(成立)의 여건(與件)

분청사기가 고려시대 말기의 쇠퇴한 상감청자의 조형의장에서 벗어나 명백하게 성립되는 시기는 15세기 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앞 장에서 이 시기의 분청사기의 공예적 특징을 14세기 상감청자와 비교하여 수적(數的) 다량성(多量性), 질적(質的) 다양성(多樣性), 조형(祖形)의 다종성(多種性)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면 분청사기의 세가지 공예적 특징을 이루게 되는 배경, 즉 당시의 공예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것을 분청사기와의 관련 속에서 규명한다면 그 결과는 분청사기 성립의 여건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예적 상황이란 전근대적인 수공업(手工業)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미이며 넓게는 산업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산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료의 여건, 기술의 여건, 자본의 여건, 수요의 여건들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반여건들의 상황을 통틀어 산업적 또는 공예적 상황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분청사기가 성립하는 여건도 공예적이 제반상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분청사기는 상감청자의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료와 기술의 여건에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지 않지만, 자본을 포함하는 수요의 여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산업적 상황의 변화가 요구된다.

수요의 증가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우선 자연적 증가요인으로서는 14세기 이후에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함께 상공업이 발달하여 국가의 경제사태가 호전되고 일반백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상승되어 수요자층이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자연적 증가요인으로 분청사기의 발달과 확대의 배경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4세기 상감청자에서 15세기 분청사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0배 이상 생산력이 증가되었던 사실을 자연적 증가요인에만 근거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다. 여기에는 자연적 증가요인과 함께 구조적 증가요인 즉 당시 일상생활 기명의 재료가 되는 자기(磁器), 금속기(金屬器), 경질도기(硬質陶器), 백자(白磁)를 포함하여 기명재료의 변천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1. 자기(磁器)와의 관계

분청사기의 공예적 특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량생산에 있다. 그리고 이 다량 생산과정에서 폭넓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고려시대 청자가 변천을 거듭하면서 다량생산화(化)를 지향하며 분청사기로 점차적인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다량생산화(化)가 시작되는 시기를 파악하면서 당시의 자기(磁器)에 관한 인식 변천과정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12세기경 청자요지는 전라남도 강진 지역과 전라북도 부안 지역의 2개 지역으로 거의 대부분 고급 청자가 제작되고 있었다. 당시 고려를 방문했던 송(宋)의 사신 서공(徐兢)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1124)에서 “지금 고려에서는 평상 위에 작은 소반을 놓고 그릇으로는 동기(銅器)를 쓰며”⁶⁾라고 지적하여 대부분 일상생활 기명은

청동기를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실이나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릇은 대부분 도금(鍍金)한 것을 쓰고 혹은 은(銀)으로 된 것도 있으나 푸른색 도기(청자(靑磁))는 값진 것(청도위귀(靑陶爲貴))으로 친다.”⁷⁾고 하여 금(金)·은기(銀器)나 도금청동기(鍍金靑銅器) 및 청동기를 일반적으로 쓰며 청자는 귀한 고급 기명(器皿)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서 이규보(李奎報)(168~1241)가 인식하고 있었던 청자는,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인식된 “청도위귀(靑陶爲貴)”의 개념과 함께 조질화(粗質化)현상과 다량생산의 현상을 암시하고 있다. 이규보는 청자로 만든 연적이나 술잔·배개의 아름답고 귀함을 시(時)의 소재로 채택하면서도 그 내용에는 “도출록(陶出錄)배(陶出錄○杯), 간선십취일(揀選十取一)”⁸⁾이라고 하여 우수한 청자는 열에서 하나를 구할 만큼 어렵다는 것을 시적(詩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이 이규보의 안목에 미치지 못하는 조질(粗質)이었으며 다량생산품이었으리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뒤이어 13세기에는 몽고의 침입과 대몽항쟁기를 거치고 고려와 원(元)의 연합군에 의한 2차 일본 원정으로 고려의 국력이 쇠진되었고, 끊임없는 원(元)의 요구에 화금청자(畫金靑磁)와 각종청자 기명이 조공의 대상으로 제작되고 있었다. 물론 이 당시에 도청자의 생산력이 증가될 여건은 갖추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14세기 전반에는 이미 청자의 다량생산화(化)와 조질화(粗質化)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다. 청자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의 매매가 이루어지고⁹⁾ 있었으며, 식량(쌀)과 함께 생활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다.¹⁰⁾ 이러한 현상은 충혜왕(忠惠王) 5년(1334)에 이제현(李齊賢)의 상소문에서 잘 지적되어 있다. 이제현은 당시 관리들의 사치풍조를 한탄하면서, “이전에는 공경(公卿)들이 옷에는 무늬없는 옷감을 쓰면서 간혹 명주나 비단옷을 입었고 그릇은 청동기와 자기·도기를 사용하였다(기용유동자와(器用鑪銅瓷瓦))”¹¹⁾고 하여 14세기 전반 이전에는 청동기와 자기 및 도기를 함께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사치풍조가 심하여 고급재료의 기명을 쓰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시 공민왕(恭愍王) 6년(年)(1357) 우필흥(于必興)의 상소문에는 풍수지리서인 『옥룡기(玉龍記)』를 언급하면서, “무릇 쓰는 그릇은 청동기나 와기(瓦器)를 써서 토풍(土風)에 순응하게 하소서”¹²⁾라고 하여 14세기 전반에는 기명의 재료에서 청동기와 도자가 동등한 위치로 인식되고 있었음이 파악되고 있다. 이는 12세기의 “기명용동(器皿用

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第22·鄉飲條,

“今麗人, 於榻上, 復加小俎, 器皿用銅”

7) 徐兢, 앞책, 卷第 26·燕禮條,

“燕禮之禮…(中略)…, 器皿多以途金或以銀, 而以靑陶爲貴, …”

8)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第 8·古律時, 金君乞賦所飲錄 ○盃用白公時韻同賦.

9) 忠定王(在位 1349~1351)의 後妃인 銀川翁主는 沙器를 파는 商人의 딸로서 王의 後妃가 되었다. 이는 沙器 판매로 유산계급으로 신분 상승한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沙器의 需要가 증가형 多量生産과 함께 일반백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던 실정을 말하는 것이다. 『高麗史』, 列傳·卷第 2·后妃 2·銀川翁主林氏,

“銀川翁主林氏, 商人信之女, 丹陽大君之婢也, 賣沙器爲業, …, 時稱沙器翁主, …”

10) 李齊賢, 『益齋亂藁』, 卷 4·時,

“耽羅地狹民貧, ○時全羅之賈, 販○器稻米者, 時至而稀矣, …”

11) 『高麗史節要』, 卷之 25·忠惠王 5年·甲申 5月,

“金海君 李齊賢, 上書都堂曰, …(中略)…, 金銀錦繡, 不產我國, 前輩公卿, 被服用素段, 若紬布器皿, 只用鑪銅瓷瓦, …”

12) 『高麗史』, 世家·卷第 39·恭愍王 6年·閏 9月

“玉龍記云, …(中略)…, 凡器用鑪銅瓦器, 以順土風, 從之.”

銅)”과 “청도위귀(靑陶爲貴)”에서 14세기 전반에는 “용유동자와(用鑪銅瓷瓦)”로 발전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14세기 말기에는 청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전국 각 지방에 요지가 설치되었다. 공양왕(恭讓王) 1년(年)(1389)에 조준(趙浚)의 상소문에는 당시 행정의 잘 잘못을 말하며, “사용(司甕)에서는 해마다 각도(各道)에 사람을 보내어(궁궐에서 쓰는) 내용(內用)〇기(〇器)를 감독·제작하는데……”¹³⁾라고 하여 청자의 제작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과 궁궐에서까지 청자를 사용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동기에 비하면 청자의 실용성과 경제성이 인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왕(同王) 3년(1391)에는 당시의 경제적·산업적 상황을 파악하고 청동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방사량(房士良)은 그의 상소문에서, “유동(鑪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동철기(銅鐵器)를 금지하고 자기나 목기로 전용하게(전용자목(專用瓷木)) 풍습을 개혁하소서,”¹⁴⁾하여 보다 넓은 산업적 인식에서 도자기의 사용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14세기 전반의 “용유동자와(用鑪銅瓷瓦)”에서 14세기 말기에 오면 “금동철기(禁銅鐵器)”하고 “전용자목(專用瓷木)”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14세기의 청자요지가 전국의 4개 지역 18개소에 불과했으나 14세기 말기에 오면 전국각지에 15개 지역의 29개소로 증가되었던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결국 분청사기가 다량생산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청자 자체 내에서 실용성과 경제성이 인식되고 다량생산을 지향하고 있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2. 청동기(靑銅器)와의 관계

청동(靑銅)은 동(銅)과 주석(朱錫)의 합금으로서 고대부터 귀금속으로 여겨져 왔고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동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각종 산업용구와 군수물자의 주원료가 되는 것이어서, 이를 일상생활 기명으로 쓰는 것은 상대적으로 산업용구나 군수물자의 원료 수급면에서 보면 원료를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청동기는 그 원료의 경제적 가치나 실용적 편리에 의해 일상생활 기명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청동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고려 시대의 실정을 기록한 『해동역사(海東譯史)』에는 “조선 땅에는 동(銅)이 많이 산출된다. (중략)음식기나 수저들은 모두 동(銅)이 많이 산출된다. (중략)음식기나 수저들은 모두 동(銅)으로 만든다”¹⁵⁾고 하거나, “음식기로는 금은기(金銀器)나 동기(銅器)를 쓴다”¹⁶⁾고 하여 고려에서銅이 생산되며 일상생활 기명은 모두 금은기를 포함한 청동기를 쓰고 있었던 점이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고려시대 전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즉 11·12

13) 『高麗史』, 列傳·卷第 31·趙浚,

“(上略) 司甕, 每歲遣人於諸道, 監造內用瓦器, 一年爲次, (下略)”

14) 『高麗史』, 志 卷第 39·刑法 2·禁令條,

“中郎將房士良, 上疏一書云, (中略), 鑪銅本土不產之物也, 願自今禁銅鐵器, 專用瓷木, 以革習俗”

15) 『海東譯史』, 卷 26·銅條, “朝鮮地產銅, (中略) 食器匙箸以此爲之” 秦弘燮編, 앞책에서 재인용.

16) 『海東譯史』, 卷 19·賓禮條,

“食器間用金銀銅器, (下略)” 秦弘燮編,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一志社, 1987), p.602에서 재인용.

세기의 청동기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도자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14세기 전반에는 청동기와 도자가 혼용되다가 14세기 말기에는 도자기 중심으로 전환되고 청동기의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11세기의 실정은 현종(顯宗) 11년(1019) 송(宋)에 사신으로 갔던 곽원(郭元)이 고려의 사정을 알린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곽원은 “(전략) 민가의 그릇은 오로지 동(銅)으로 만든다.”¹⁷⁾고 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임을 고려한다 해도 일반백성의 기명은 대부분 청동기 중심이었던 것이 파악된다. 『선화봉사고려도경』(1124)에도 일반적으로 “기명용동(器皿用銅)”¹⁸⁾하고 왕실이나 외국사신의 접대에는 금은기(金銀器)나 도금청동기(鍍金靑銅器)가 중심이며 청자는 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⁹⁾ 특히 청동기는 일상생활 기명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서 심지어는 시골에서 막 쓰는 허드레 그릇까지도 청동기를 사용했을²⁰⁾만큼 보편화된 기명 재료였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당시의 공예 즉 산업품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계층과 경제적 상황을 연관하여 고려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고려시대에 대한 연구 실정으로는 구체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고려에서는 중국에 청동기를 수출하고 있었으며,²¹⁾ 『선화봉사고려동경』에도 “고려에는 금은(金銀)이 적고 동(銅)이 많이 난다.”²²⁾고 지적하고 있어서 동원과(銅原料)의 수급문제는 원활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런데 13세기 전반부터 계속되는 몽고의 침입과 대몽항쟁기를 거치면서 동(銅)의 원료 수급문제는 악화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고려·원(元)의 연합군의 2차에 걸친 일본정벌에 군사물자를 부담했고 뒤이어 끊임없는 원(元)의 금속원료의 수탈로²³⁾ 인하여 고려의 동원과(銅原料)는 당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청동기명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었고 왕실이나 관리들은 부정한 수단으로 일반백성의 청동기명을 착취하고 있었다. 충렬왕(忠烈王) 22년(1295)년에 홍자번(洪子藩)의 상소문에는, “근래에 유동장인(鑪銅匠人)이 외방에 있으니 무릇 주·현의 관리나 그 무리들이 민가(民家)의 기명을 서로 다투어 거두어서 그릇을 만드니 백성들의 그릇이 날로 손상되고 있는데 마땅히(유동장인을) 경(京)으로 돌아오게 하소서”²⁴⁾하여 청동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도 청동기에 대한 수요 욕구가 있었던 점이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청동기의 수요 욕구는 14세기에 들어 고려의 국정이 쇠퇴하고 田制와 稅制가 문란해지며 왕실의 분쟁이 되풀이되는 정치·사회적 파탄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충

17) 『海東經史』, 卷 28·雜俗條·

“高麗史郭元, 自言本國風俗頗類中國, (中略) 民家器皿悉銅爲之,” 秦弘燮編, 앞책, p602에서 재인용.

18) 註 6.

19) 註 7.

20) 徐兢, 앞책, 卷第 20, 婦人·戴條,

“○戴之役, 其勞一等, 水米飲歡, 並貯銅罍, 不以肩舁, 加於頂上, 罍有二耳, (下略)”

21) 『高麗史節要』, 卷 11·毅宗莊孝大王, 甲申. 18年

“春三月, (中略) 如宋, ○鑪銅器.

22) 徐兢, 앞책, 卷第 23·雜俗 2·土產條,

“地小金銀, 而多銅, 器用漆作, 不甚工, 而螺鈿之工,”

23) 『高麗史節要』, 卷 18·元宗順孝大王, 壬戌 3年

“秋九月, 蒙古, (中略), 索鷄子, 及好銅二萬斤.”

『高麗史』, 世家·卷 25·元宗, 壬戌 3年條

『高麗史』, 世家·卷 30·忠烈王, 乙酉 11年條

24) 『高麗史』, 志 38, 刑法 1, 忠烈王 22年 5月條

“中贊洪子藩, 條上便民事, 一, 近有鑪銅匠, 多居外方, 凡州縣官吏, 及使命人員, 爭斂鑪銅, 以爲器皿, 故民戶之器, 日以耗損, 宣令工匠, 立限還京.”

혜왕(忠惠王) 4년(1343)에는 국가재정이 쇠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궁(新宮)을 짓기 위하여 백관(百官)에서 서리(胥吏)에 이르는 관리들에게 유동(鑪銅)을 징수하였고, “전국 각도(各道)의 동철(銅鐵)을 거두어 솔·가마를 주조하여 신궁에 들여 놓으니, 이 때문에 민가의 농기구까지 모두 끊어 들여 남의 것이 없었다.”²⁵⁾고 했을 만큼 왕실과 관리들의 횡포로 인하여 일반백성이 청동기를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청동기의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면 대체 원료의 등장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곧 일상생활 기명에서 도자기화(化)가 진전되는 여건이 되고 있다.²⁶⁾

일상생활 기명이 청동기 중심에서 도자기 중심으로 전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략 14세기 전후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는 앞서 언급한 충혜왕(忠惠王) 5년(1344) 이제현의 상소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현은 “이전에는 공경(公卿)들이 옷에는 무늬없는 옷감을 쓰면서 간혹 명주나 비단옷을 입었고 그릇은 청동기와 자기·도기를 사용하였다.”²⁷⁾고 하면서, 당시 관리들에 만연하는 사치풍조를 한탄하고 그 전과 같이 청동기와 자기·도기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내용에서 당시 14세기 전반 이전에는 지배계급에서도 청동기와 도자기를 혼용하였는데 충혜왕 대에 들어와서 왕실과 지배계급이 사치풍조에 젖어 기명의 도자기화(化)가 역행되고 있었던 실정이 파악된다.

그러나 몽고의 침입이후 몽고로부터의 수탈 및 왕실과 관리부터 끊임없이 청동기를 수탈당했던 일반백성에게는 도자기에 대한 경제적 실용적 가치가 인식되고 수요 욕구가 증가되고 있었을 것이다.

14세기 중엽인 공민왕대(恭愍王代)(1351~1374)에는 기명(器皿)의 도자기화(化)가 더욱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력이 향상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신진정치세력으로 중소지주 출신의 신흥 사대부 세력이 대두되고 지주(地主)·전호제(佃戶制)가 발달하여 신분제도에 변동이 생기며 일반백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었다.²⁸⁾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적 신분상승으로 공예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일상생활 기명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당시의 실정으로는 청동기보다 상대적으로 산업적 여건이 좋은 도자기로 전환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급 공예문화의 수요자가 증가하는 것이 곧 고급 공예의 생산이 확대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즉, 동일한 산업구조 안에서 수요자가 증가하는 것은 그와 정비례해서 원료 및 기술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다량생산에 따른 저질화를 초래하게 되고, 또 원료의 수급이 못 미치게 되면 고급 원료에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생산이 용이한 원료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시기는 중국에서 원(元)과 명(明)이 교체되는 때이며 흥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장기적인 침해로 국방의 강화가 절실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청동 원료가 군사물자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던 실정에서, 새로운 수요자들에게 청동기명이 공급된다는 것은 현

25) 『高麗史節要』, 卷 25 · 忠惠王 · 癸未四年,

“王, 怒新宮營構稽緩, (中略), 神宮殿宇文戶, 皆飾鑪銅, 及命百官下室胥吏, 每二人, 給五絁布一匹, 徵鑪銅二斤, 人皆苦之, 又歛諸道銅鐵, 鑄鼎鑊錡釜, 納之新宮, 於是, 民間農器, 盡括無餘.”

26) 銅은 金·銀과 함께 貴金屬에 속하는 것으로서 각종 산업용구와 戰爭物資는 물론 貨幣의 원료가 된다. 따라서 銅으로 生活記皿을 만들면 그 폐단이 심하며, 그의 대체품으로 陶磁가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한 형상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崔建, 『韓國 青磁 發生에 관한 背景의 考察』, 『古文化』, 第31輯, p.19와 「朝鮮時代 後期 白磁의 衰退要因에 관하여」, 『第31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pp.363-364.

27) 註 11.

28) 李泰鎮, 「高麗末·朝鮮初의 社會變化」,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pp.107-121.

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공민왕 6년(1357)에 우필흥(于必興)의 상소문에서, “무릇 쓰는 그릇은 청동기나 와기(瓦器)를 써서 토풍(土風)에 순응하소서.”²⁹⁾했던 것은 청동기와 함께 도자기의 사용을 장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4세기 말기에 오면 궁궐에서도 자기를 쓰게 되었다. 공양왕 1년(1389) 조준의 상소문에는, “사용(司甕)에서는 해마다 각도(各道)에 사람을 보내어(궁궐에서 쓰는) 내용용기(內用甕器)를 감독 제작하는데 1년에 한번씩 한다.”³⁰⁾고 하여 도자기의 실용성에 대한 인식이 궁궐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밝히는 반면 청동기의 공예적 위치가 위축되었던 점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자기가 일상생활 기명으로 인식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요인은 동(銅)의 국내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양왕 3년(1391)에는 화폐의 주조를 논의하면서 금(金)과 동(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³¹⁾ 했으며, 방사량(房士良)의 시무(時務) 11조(條)에도, “유동(鑰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동철기(銅鐵器)를 금지하고 자기(瓷器)나 목기(木器)로 전용하게 풍습을 개혁하소서”³²⁾라고 하여 동(銅)의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동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었던 불가피한 실정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청동기 금지정책은 려말·선초의 교체기에 불안정한 국내정세와 끊임없이 침입하던 왜구의 창궐을 막기 위한 군사물자의 요구가 절실했던 요인도 있었다. 당시 성균관 생원 박초(朴礎)등은 불교의 폐해를 논하면서, “동상(銅像)과 동기(銅器)는 군기사(軍器寺)에 소속시켜 갑옷과 무기를 만들게 하고……”³³⁾라 하여 결국은 동(銅)의 군수물자화(化)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세기 말기에 형성되었던 동(銅)과 도자(陶磁)에 대한 인식은 15세기에 와서 더욱 진전되고 있었다. 태종(太宗) 7년(1417)에 호조(戶曹)의 상계문(上啓文)에는 외공(外貢)으로 사목기(砂木器)가 진상되고³⁴⁾ 있었는데, 이는 공양왕 3년에 “전용자목기(專用瓷木器)”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세기에도 동(銅)의 국내생산은 부진하였고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종년간(世宗年間)(1418~1450)에 동전의 주조를 위해 일본에서 동(銅)을 수입하는 한편 민간(民間)에서 청동기의 제작과 사용을 금지시켰던 것은³⁵⁾ 동(銅)의 국내생산이 부진했던 원인과 함께 고려말기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국방력의 강화와 북진정책등에 따른 군수물자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세종년간에 왕실용 기명인 금은기(金銀器)의 사용을 금지하고 백자(白磁)로 대체하였던 사실은, 세종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강요되어 왔던 금속원료의 조공문제를 해소하였던 왕으로서 금속의 경제적·산업적 인식과 함께 그의 대체품으로 자기(磁器)의 실용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의지로 생각된다.³⁶⁾

이상과 같이 청동원료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그의 대체원료로 도자기의 사용이 강조되

29) 註 12.

30) 註 13.

31) 『高麗史』, 志·卷 33·食貨 2.

32) 註 14.

33) 『高麗史節要』, 卷 35·恭讓王·辛未 3年

“成均生員朴礎等, (中略) 其銅像銅器, 屬於軍器寺, 以修甲兵, 其所用器皿, 屬於禮賓寺, 以分各司各官”

34) 『太宗實錄』, 卷 33, 17年 4月 丙子條.

35) 柳承宙, 「鑛工業의 生産形態」, 『韓國史論』·11·朝鮮前期 商工業, (국사편찬위원회, 1984), pp.206-207.

36) 鄭良謨·崔建, 「朝鮮時代 後期 白磁衰退要因에 관한 考察」,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一志社, 1988), p356.

고 있었다.

3. 경질도기(硬質陶器)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고려도기(高麗土器)라고 불리우는 회색(灰色) 또는 회흑색(灰黑色) 무유경질도기(無釉硬質陶器)는 고려시대 전기간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명(器皿)으로 제작되어 왔고 조선시대에도 존속되고 있었다.

경질도기는 용도나 크기에 따라 대(大)·중(中)·소형(小形)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형은 대옹(大甕)·대호(大壺)등의 저장용 기명과, 중형은 호(壺)·병(瓶)·바래기 등의 운반용 기명과, 소형은 발(鉢)·접시 등 음식 기명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대형기명은 그 실용적 용도 및 사용담당자에 의해 실적(實的) 상승 요구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형기명의 경우에도 사용담당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 고급원료의 기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경질도기의 소형기명 형식이 고급기명 형식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러나 중형기명인 병이나 항아리인 경우에는 분청사기가 실용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질적(質的)으로 상승하여 분청사기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경질도기의 병·항아리가 분청사기로 전환되는 것은 일상생활 기명에서 분청사기의 위치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의 성립 여건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4. 백자(白磁)와의 관계

백자는 고려시대 초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분청사기가 존속되던 기간에도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꾸준히 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분청사기가 소멸된 이후에는 조선시대 도자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분청사기가 소멸하는 요인중의 하나를 백자의 수요증가에 따라 분청사기의 생산기반이 점차적으로 상실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여 왔다.

이와같이 분청사기 소멸요인 중의 하나가 백자의 수요증가에 있었다고 본다면, 분청사기가 성립하고 다량생산되기 위한 여건 중의 하나로 백자의 생산이 다량생산 체제에 들어설 만큼 기술적으로 미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요층이 확대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백자의 생산량이 억제 당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분청사기가 다량생산되는 여건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분청사기가 뚜렷이 성립되고 다량생산하는 15세기에 백자의 공예적 위치 문제를 규명하면 당시에 백자와 분청사기의 구조적 관계가 파악될 것이다.

성현(成俔)(1389~1504)의 『慵齋叢話』에는 “세종대(世宗代)(1418~1450)의 어기(御器)는 오로지 백자를 썼다.”³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세종시대인 1424년부터 1432년 사이에 실정이 기록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전국에 139개소의 자기소(磁器所)가 있으나, 그 중에서 백자를 제작한 자기소는 광주(光州)·고령(高靈)·상주(尙州)·남원(南原)을 포함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분청사기 제작이 중심이고 백자는 일부 특별히 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³⁸⁾ 따라서 세종시대

37) 成俔, 『慵齋叢話』, 卷 10.

“世宗朝御器, 轉用白磁, 至 世祖朝, 雜用彩磁”

38) 姜敬淑, 앞책, p.26.

에는 어용지기(御用之器)를 포함한 특별한 경우에 백자가 사용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수요는 분청사기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고려시대 말기 이후로 청동기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고 세종시대에도 청동기의 제작과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백자를 쓰는 왕실 이외에 일반백성들은 분청사기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세종시대에 어기(御器)를 금은기(金銀器)에서 백자로 대체하였던 원인을 일상생활 기명의 도자기화(化)를 장려하려는 의도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분청사기와 연관하여 보면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백자는 왕실용으로 한정하고 조신사대부(朝臣士大夫)나 일반백성은 분청사기를 사용하게 하여 기명(器皿)에 있어서 신분에 따른 차등을 두려는 의도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세종대(世宗代) 이후 문종(文宗)·단종대(端宗代)에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조신사대부(朝臣士大夫)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를 억제하고 왕권을 확보했던 세조(世祖)(1455~1468)에 의해 백자에 대한 금령(禁令)이 내려지는 것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즉 동왕(同王)12년에 “자기(磁器)(백자)는 지금으로부터 진상품 이외에 공사처(公私處)에서 사용을 절대 금지하며 서울과 지방의 장인이 몰래 만들어 시장이나 조신(朝臣) 및 일반백성이 사사로이 서로 팔고 사는 사람은 벌을 준다”³⁹⁾고 하여 왕실용의 진상품 외에 백자의 제작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내용은 백자를 왕실용 기명으로 규정했던 세종시대(世宗時代) 이후에 조신사대부(朝臣士大夫)와 일반백성 사이에서 백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킨 내용이다. 다시 세조(世祖)는 “백자는 진상품과 이미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공사간(公私間)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어기면 사용자와 공장(工匠)이 모두 중죄를 받는다”하고, “백토(白土)를 산출하는 읍(邑)에서는(백토(白土))의 남용(濫用)을 못하도록 하고 생산지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공조(工曹)와 승정원(承政院)에 비치하라”⁴⁰⁾고 하여 백자의 제작은 물론 원료가 되는 백토(白土)까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뒤이어 1554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 백자기항(白磁器項)에도 “어선용백자기(御膳用白磁器), 동궁용청자(東宮用靑磁), 예빈용채문기(禮賓用彩文器)”⁴¹⁾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세종대(世宗代)에 백자(白磁)가 어용지기(御用之器)로 채택된 이후 조선시대 말기까지 일관된 기명(器皿)의 정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15세기에 백자를 어용지기(御用之器)로 채택하고 일반의 사용을 금지시켰던 결과는 조신사대부(朝臣士大夫) 및 일반백성에게 분청사기가 폭 넓게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며, 왕실을 제외한 사회의 신분에 따라 고급 분청사기와 저급 분청사기가 함께 다량생산되는 결과가 되었다.

IV. 맺음말

이제까지 분청사기의 발생 및 성립의 여건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고려시대 말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조선시대 전기의 역사 인식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분청사기의 공예적 특징인 다량생산 문제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적 수요증가에 근거를 두는 것에 머물고, 당시 공예적 제반상황과 함께 구조적인 규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39) 鄭良謨, 「朝鮮白磁의 變遷」 『朝鮮白磁展』, 1, (호암미술관, 1983), p.55에서 재인용.

40) 鄭良謨, 未刊.

41) 『經國大典註解』, 刑典, 禁制條, 白磁器項, (亞細亞文化社, 1983), p.315.

이 글에서는 분청사기의 공예적 특징을 수적(數的) 다량성(多量性)·질적(質的) 다양성(多樣性)·조형(造型)의 다종성(多種性)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형성되는 여건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청사기의 공예적 특징을 형성하는 여건의 파악은 곧 분청사기 성립의 여건이 되는 것이다.

분청사기 성립의 여건은 사회적 제반실정의 발전과 함께 하는 자연적인 여건과, 청동기의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자 일상생활 기명에 도자기화(化)가 불가피해졌고 또 그러한 현실적 요구에 의해 도자기의 실용성과 경제성이 당시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되어졌던 데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도자기가 다량생산되면서 한편으로는 청동기와 백자의 사용이 규제되었기 때문에 분청사기로의 성립 및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1.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수요증가,

1. 청동기 사용금지로 인한 청동기 사용층이 도자기 사용으로의 전환,

1. 일상생활에 실용적으로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경질도기의 일상생활 기명이 그 당시 위치가 확대되고 있었던 분청사기로의 전환,

1. 백자의 사용 제한에 따른 일반사회 전반이 분청사기로 단일화하였던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건들이 다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분청사기를 성립하게 되는 여건이 된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분청사기 성립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분청사기 성립 여건이 변화되면서 본래의 의의를 잃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분청사기가 소멸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후에 기회를 얻어 고찰해보고자 한다.